

“APEC 성공 기원” 광주-경주 400km 걷는다

본보 2025 캠페인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영호남도보종주 ‘원발 박사’ 이범식씨

“원발의 기적, 대한민국 모두의 마음으로 완주하겠습니다.”

양팔이 없고 오른쪽 다리는 의족에 의지한 ‘원발 박사’ 이범식(60·경북 경산)씨가 광주에서 경주까지 약 400km에 이르는 도보 종주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박사는 22세였던 지난 1985년 고압 전기 공사 도중 감전 사고로 두 팔과 오른발을 잃었으나, 시련에 굴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해 대구 대학교에서 컴퓨터학과와 직업재활학과를 복수 전공한 끝에 11년 만에 이학박사(직업재활) 학위를 취득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일궈냈다.

무등산서 출발 내달 1일까지 예정

20대 감전사고 두팔·오른발 잃어

“이 길은 희망의 여정” 관심 당부도

이 박사는 7일 오전 광주 무등산 정상에서 출발해 광주시청 앞 광장까지 25km를 걷은 뒤 이튿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담양 봉산까지 21km 구간을 걸으며 본격적인 여정에 돌입한다.

이번 도보 종주는 오는 10월30일부터 11월7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동서 지역 간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 박사는 오는 8월1일까지 28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걸어 담양·순



‘원발 박사’ 이범식씨가 지난해 서울-경산 400km 도보 종주를 앞두고 경산 남매지에서 걷기 훈련을 하는 모습.

창·남원·함양·대구 등지를 거쳐 최종 목적지인 경주에 닿을 예정이다.

이 박사는 이 기간 각 지역에서 시민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장애를 극복한 삶의 의미를 공유할 계획이다.

그는 “이 길은 함께 걷는 희망의 여정”이라며 “꺾이지 않는 의지로 APEC 성공을 응원하고 싶다”고 시민들의 관심과 동행을 당부했다.

이어 “60대의 나이에 양팔이 없는 몸과 의족에 의지한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며 “이 도전이 전국의 장애인과 삶의 벽 앞에 선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응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범식 박사는 지난해 서울에서 경북 경산까지 426km를 완주해 화제를 모았으며 이를 계기로 ‘올해의 장애인상’ 대통령상을 수상해 재활 분야의 상징적 인물로 떠올랐다.

/박현진 기자

박경혜 빛고을전남대병원 간호사

‘손에 안 묻는 소독 면봉’ 특허 등록



박경혜(사진) 빛고을전남대병원 외래간호팀 간호사가 의료 현장의 불편을 개선한 아이디어로 특허를 등록했다.

7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박 간호사는 약액에 의한 착색 등 기존 일회용 소독 면봉의 위생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킨 ‘손에 묻지 않는 포비돈 면봉(Povidone iodine cotton swab)’으로 디자인 특허를 등록했다.

보통 상처 소독 과정에서 소독약과 면봉이 각각 준비되며, 소독약은 개봉 후 위생 문제로 폐기된다. 최근에는 소독약이 스며든 일회용 면봉이 활용되지만, 개봉 시 손에 약액이 묻거나 주변이 오염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박경혜 간호사는 “소독 면봉을 의료진끼리 전달할 때 소독액이 손잡이에 묻어 있어 감염 위험도 조심스러웠다”며 “작은 불편이지만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특허는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이 진행하는 ‘바이오헬스 임상 현장 연계 기술사업화 플랫폼 지원사업(사업책임자 허한 기술산업화 부장)’의 일환인 ‘찾아가는 지식재산권 컨설팅 지원’의 도움에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사업은 보건 의료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추상적인 아이디어부터 구체적인 발명 기획까지 1:1 맞춤형 컨설팅과 변리사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수희 기자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역대급 홍보대사 ‘눈길’

정관스님·오세득 셰프 등 9명 위촉

남도미식 매력 등 글로벌 홍보 앞장

전남도는 7일 정관스님·정지선·오세득·임희원·홍신애·마초다·히바·안성훈·강혜연 등 9명을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도청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김영록 전남 지사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홍보대사 위촉을 축하하고 남도 음식이 지닌 풍부한 미식 자산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홍보대사는 사찰 음식의 대가이자 요식업계의 아카데미 상으로 불리는 미국 요리상 ‘제임스 비어드상’을 수상한 정관스님, 꽃장년 미식가 마초다, 대한민국 먹방 아이콘 히바, 흑백요리의 대표 셰프 오세득과 정지선, 한식요리사



김영록(오른쪽 세 번째) 전남지사가 7일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임희원·오세득 셰프, 홍신애 요리연구가, 정관스님, 유튜버 마초다(왼쪽부터)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희원, 요리 연구가 홍신애, 미스터트롯 2우승자 안성훈과 미스트롯 요정 강혜연이다.

이들은 향후 국내외 홍보 활동을 비롯해 박람회 주요 프로그램 참여,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며 남도 미식의 우수성과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전남의 청정한 식재료와 정성이 깃든 남도 미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정부 승인을 받은 국내 최초 미식 테마 국제행사다. 오는 10월1일부터 28일까지 목포 일원에서 펼쳐진다.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박람회에는 ▲아세안 파빌리온 등 5대 글로벌 이벤트 ▲케이푸드(K-FOOD) 국제경연 ‘글로벌 은둔고수’ 등 4대 경연대회 ▲남도 주류페스타 등 3대 연계행사 ▲코트라와 재의 동포청 수출 상담회를 비롯한 5대 비즈니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대한민국 미식의 뿌리이자 정수로 케이푸드 열풍을 이끌 이번 박람회는 남도 음식의 가치를 알리고 산업화·글로벌화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라며 “홍보대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미식 전문가로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남도 미식의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환경공단 ‘환경공기업협의회’ 개최

광주환경공단은 “최근 공단 대회의실에서 전국 5개 광역 환경공기업과 함께 대한민국 환경공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ESG 경영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수질시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협의회는 광주환경공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전시설관리공단, 부산환경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등 전국 6개 환경공기업이 참여해 지난 2023년 11월 출범했다.

이들은 환경 기술 개발과 상호 교류, 환경산업 활성화, 공공서비스 개선을 통한 사회적 책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회칙 제정과 국제청 공식단체 등록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특히 하수처리장 공정 운영과 연계한 수질시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경부 제도 개선 요구사항이 심의·의결됐다.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ESG 경영이 공공부문에서도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전국 환경공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광주기상청, 폭염 피해 예방 캠페인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북구 말바우시장 인근 우산근린공원에서 폭염 피해 예방 ‘해피해피’ 캠페인을 펼쳤다.

“해를 피하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의미가 담긴 이번 캠페인에서 광주지방기상청은 시민들에게 얼음 생수와 부채를 나눠줬다.

함께한 자율방재단연합회는 직접 만든 미숫가루를 제공하며 더위 식히기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또 폭염 영향예보 리플릿을 나눠주며 충분한 물 섭취와 시원한 그늘에서의 휴식 등 행동 요령을 전파했다.

/안재영 기자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김상욱 의원 ‘명예구민’ 위촉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이 광주 남구 명예구민으로 위촉됐다.

남구는 7일 오전 구청 7층 상황실에서 김 의원에 대한 ‘남구 명예구민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내 남구청장을 비롯해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남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란 이후 김 의원이 보여준 정치적 신념과 행보가 1980년 오월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판단해

명예구민으로 위촉했다.

김 청장은 “보수 정당의 당리당략보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깨어 있는 정치인”이라며 “이분께 명예 구민패를 드리는 일은 민주주의 역사에 큰 의미를 남기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치인들이 표를 위해 지역감정을 자극만 했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며 “지방 대도시 쇠퇴를 막기 위해 연대 법안 마련에 힘쓰고 남구민의 일원으로서 지역과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주성학 기자



목포해양대·목포가톨릭대 ‘민주·인권 현장 탐방’ 성료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목포가톨릭대학교는 “최근 이틀간 공동 진행한 ‘시민의 길: 민주주의를 걷다’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세대의 시민 감수성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양 대학 재학생 26명은 국회의사당, 민주화운동기념관, 전태일기념관, 남산인권길, 이한열기념관 등 서울 주요 민주·인권 현장을 탐방했다.

참여학생들은 현장체험이후 각자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거리의 선언문’을 작성·발표했으며, 이 결과물은 향후 양 대학이 공동 주최할 예정인 ‘해양인권영화제(가칭)’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김성철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기초소양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대학이 연대해 학생들에게 시민과 인권의 의미를 되새길 기회를 제공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학 간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공동체 의식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김현성 광주일자리재단대표 ‘국정기획자문위원’ 위촉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방향과 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7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이날 소상공인 전용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을 이끈 김 대표가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경제2분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내수 활성화, 지역경제 회복 등 실물 경제와 직결된 핵심 현안을 다루는 부서다.

김현성 자문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 설계에 참여



하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민생 경제와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태호 기자

전남대병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서영대 협약

전남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광주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서영대학교는 최근 병원 연구동 회의실에서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지역사회 연계, 예비 보건의료인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인성 센터장(재활의학과 교수·사진 오른쪽)과 윤선호 서영대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애인 대상 건강 관련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예비 보건의료인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 및 현



장 연계 프로그램 강화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기수희 기자